

원익, 특수가스 생산 확대

경기회복에 세계 반도체 시장 개편 ... 100여종 공급

원익머트리얼즈가 특수가스 생산설비를 증설한다.



원익머트리얼즈 이준열 대표이사

특수가스 생산기업인 원익머트리얼즈의 이준열 대표이사는 12월7일 기자회견을 열고 “전방산업의 대형화로 N₂O 등 특수가스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영업이익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”고 밝혔다.

이어 “경기가 회복세로 돌아서면 국내기업들을 중심으로 세계 반도체 시장이 재편될 것”이라며 “신소재 개발로 대응하겠다”고 강조했다.

원익머트리얼즈는 2006년 12월 설립된 후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공정에 사용되는 특수가스를 생산하고 있으며, 삼성전자 및 하이닉스 등에 납품하고 있다.

N₂O는 반도체 및 AM-OLED(유기발광 다이오드)를 제조할 때 산화막 증착에 사용되는 특수가스로, 원익머트리얼즈는 N₂O 외에도 암모니아(NH₃), 일산화질소(NO), 삼불화붕소(BF₃), 불소(F₂) 등 100여종의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.

원익머트리얼즈는 2010년 매출액 666억원, 영업이익 151억원을 기록했고 2011년 3/4분기까지 매출액 652억원, 영업이익 142억원을 기록했으며, 12월28일 코스닥시장에 상장될 예정이다. <저작권자 연합뉴스 - 무단전재·재배포 금지>

<화학저널 2011/12/07>